

10

가정예배 · 구역예배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이사아 · 갈라디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10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이사야 · 갈라디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총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및 함양 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갈보리를 향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으로 떨어진 핏자국을 이정표로 삼아
오늘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울릴 때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2009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포도원의 비유(1~7절)를 통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채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은 유다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포도 열매는 그들의 악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먼저 술선수범하여 공평과 의를 추구하며 실행해야 했는데, 도리어 부정과 착취의 주범이 되어 끊임없는 사리사욕의 추구(8절)와 방탕한 쾌락을 추구(11~12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궁핍함과 사망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도리어 쓸모없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성격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사 5: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일에 당신의 종을 개입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가가 선지자로 거듭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언제든지 그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1~5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8절)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는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5절). 이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사의 반응과 동일합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봉사는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는 위기와 곤경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과 방법을 먼저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3~9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11절).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겸손을 가장하고는 오히려 뇌물을 주고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왕하 16:7~19). 결국 아하스의 이러한 정책은 남왕국 유다를 앗수르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약속이 있었는데도 결국 인간의 방법과 힘을 더 의지했던 아하스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14절). 아하스의 큰 범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변함없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노력과 행위를 벗어나고 예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진정한 안식과 놀라운 평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가정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약속에도 앗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를 도리어 앗수르를 통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5~15절).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자산을 내어 맡길 때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실로아 물과 큰 하수의 비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5~8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풍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외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앗수르 제국을 상징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은 이처럼 고요하게 흐르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형적으로 엄청난 힘을 과시하였던 앗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앗수르는 남왕국 유다의 진정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왕국 유다가 붕괴되는 결정적인 원인만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든 처음엔 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패망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나와 우리 이웃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사 8:13)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멸사에서 영광으로, 압제에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1~5절). 6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분쟁의 부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다툼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내적인 마찰이나 분쟁, 손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한편에는 정죄를, 한편에는 심판의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6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롬 8: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영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평화란 곧 이기심과 불의를 벗고 진정한 심, 곧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부패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화를 선고받는 방백과 재판관들은, 첫째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둘째 제정된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판결하였으며, 셋째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토색·약탈하였습니다(1~4절).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릴 것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밟던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4절).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5~34절). 앗수르는 마치 연장이 그 주인보다 높다고 생각했듯이 앗수르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지 않았습다.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의 침략을 애굽의 압박에 비유하고, 남은 자의 회복을 그 압박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0~3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영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백성에게는 생명 안에 거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사 10: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말씀은 곧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와 영이 메시아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2절).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자신의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1~5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경외와 구원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심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설될 공의의 왕국은 평화와 조화가 완전한 왕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6~9절). 즉 상함과 해함이 없고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미 메시아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두 세계를 실존적으로 체험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며 기뻐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1~3절).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및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순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2절)라고 고백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입니다(3절). 또한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이다”(4~5절)라는 말씀대로 성도들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세계 만민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생명의 주께 감사찬양 드리며 주님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 12:2)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우리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대적자를 치는 역할을 하였으나, 나중에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150년 후 (B.C. 539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1~5절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나라에서 물려올 것임을 예견합니다. 6~13절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어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거만한 자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 그곳에는 고통과 슬픔, 살육, 잔혹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이 떨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곳에 가득했던 악이 파괴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4~2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한 공격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살육을 일삼았던 바벨론은,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인생의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멸망받지 않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사 13:1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공휟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2절). 즉 바벨론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강대국을 조롱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3~23절). 또한 앗수르와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4~32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언젠가는 화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휟하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강자가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7)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여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함은 물론 그들을 군사적으로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탐낸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기울어 가는 징조가 사전에 보이다가 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루 밤에 황폐해졌습니다(1절).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거나 마음이 심히 상한다는 표시입니다. 이렇듯 모압인들은 그들 성읍의 최후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1~4절). 또한 모압인들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남쪽 예돔으로 피난하지만, 니므림의 물은 마르고 살아남은 자들도 사자에게 쫓기듯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또한 모압의 군인들도 그들의 성읍을 지킬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5~9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나 죄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이 심판은 모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에 대해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리에서는 굶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매통하여 심히 울며”(사 15:3)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회 학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일꾼을 양성(딤후 4:6)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압이 멸망한 원인으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6절)라고 합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죄악 중에서도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3~5절의 말씀대로 피난민이 된 그분의 백성을 도와줌으로써 다윗 왕가가 다시 설 때 그 축복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멸망을 피할 길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5절).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교만한 죄인인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압과 같이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여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 없으리로다”(사 16: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던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이시야는 다메섹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앗수르에 의해서 함께 폐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4절). 그러나 6~8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말씀을 통해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그 백성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마침내 그들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2~14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느덧 죄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오직 선과 의와 구원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사 17: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스는 애굽 남단에 있던 나라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애굽과 동맹 관계로 오랫동안 애굽이 짓는 모든 죄악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앓수르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 이사야는 악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찌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시 10:4),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잠 15:3).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롬 2:6). 하나님께서는 당시 근동 지역 전체를 휩쓸고 마침내 남유다 왕국까지 넘보았던 앓수르를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4절). 앓수르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길은 두려움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 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사 18:3)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에게 있어 애굽은 항상 세상적인 의존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정치·종교·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고대 근동의 중심이요 선두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고 나일 강변의 애굽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앗수르의 침략을 당하자 유다는 먼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1절).

오늘날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 재물, 지혜, 배경, 건강 등이 아닙니까! 이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썩어질 것으로서(엡 4:22), 성도에게 결코 참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애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멸망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러한 성읍도 장차 ‘그 날에’(18절) 여호와를 경배하는 애굽의 다섯 성읍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완악한 도시, 강박한 심령일지라도 능히 부수와 녹일 수 있는 능력임을 말합니다(롬 1:16). 오직 복음만이 타락한 심령을 변화시켜 구원으로 이끕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만한 심령 속에는 결코 복음의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에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마 5:3).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지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20)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에 출현의 모든 성도가 참석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유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군사력을 지닌 강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상징으로 나약하고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4~6절).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를 보여주어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앗수르가 침략을 당할 때 애굽과 구스를 바라보고 크게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도 앗수르에 패하여 포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일깨워주기 위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포로의 행세)로 행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습니다(2~4절).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수치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기이한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함 받은 성도가 참 구원의 반석인(시 18:1~2)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똑똑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고 무너져 갈지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말씀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날 청지기들도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이 높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주 달린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리고 부끄러워할 것이라”(사 20: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과 복음으로 충만한 장로피택자들의 주제발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選民)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열국들의 운명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함으로 써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예언의 대상인 에돔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서,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구원의 밝은 아침이 다가오지만, 에돔을 향해서는 멸망과 좌절의 밤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11~12절). 마지막으로 예언의 대상은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펼쳐진 사막 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아라비아입니다(13~17절). 아라비아는 산업이 번창한 관계로 인해 이스라엘과 좋은 무역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라비아의 힘과 부에 기대어 자신들의 안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아라비아의 힘을 꺾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악 된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죄악을 경계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은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사 55:7 : 잠 16:18).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사 21:10)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열국들의 운명에 관해 예언해 왔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될 환상의 골짜기(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들에게 닥칠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추악하고 세속적인 방종에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패락과 부패에 심취해 갔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시는 죄악을 더욱 열심을 내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12~14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은 예루살렘이 폐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소란과 뱀핍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5절)라고 그 절박한 상황을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의지하고 양망하는 심령들만을 굳게 붙잡아 참 안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사 40:31). 하나님은 범죄한 예루살렘 주민을 심판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12절).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죄악 된 삶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와 은총의 날개 아래로 나오길 원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외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뱀핍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사 22:5)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선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국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으로서,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인 두로에 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 주변 열국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로는 일찍부터 지중해라는 해상 무역로와 팔레스틴이라는 육상 무역을 이용하여 국제 무역을 주도하며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화려하고 기세등등하던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9절). 자신의 조그마한 성공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인생들은 그 날이 결코 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잠 16:18). 하나님은 교만하여 목을 곧게 세우는 자를 철저히 물리치시고 그들의 삶을 어지럽히실 것입니다(약 4:6). 이처럼 철저히 쇠락해 갔던 두로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십니다(18절). 하나님은 두로가 세상의 물질주의로 타락했지만, 그들이 벌어들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18~19절). 진실로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그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막 10:21).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사 23:2)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시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시고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실로 앞선 열국들에 대한 심판(13~23장)이 주로 전쟁으로 인한 일정한 지역의 황폐를 선언한 것이라면, 여기 언급된 땅의 황폐는 근본적이고도 완벽한 절망 상태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3~4절). 여기서 온 땅이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철두철미하게 황폐화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 스스로가 회복 불가능할 만큼 철저히 타락하고 범죄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빼어드시는 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시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다가 분위기를 바꾸어 사람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선언하게 됩니다(14~16절). 하나님은 비록 죄악과 부패로 오염된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공홀과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히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사 24:1)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천지기훈련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최후의 심판을 통해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온에서 왕으로 만민을 위한 풍성한 구원의 잔치가 주님을 통해 베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6절). '이 산에서'는 하늘의 시온, 즉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 잔치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인종의 구별 없이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임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잔치는 혼인 잔치를 베풀 어떤 위급을 비유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마 22:14). 만민을 위한 잔치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이 은총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7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수치를 제하실 것입니다(8절). 이처럼 이 구원의 잔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모욕을 친히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잔치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사 25:9)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임직되는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원수의 교만을 누르시고 그들의 성채를 헐어 버리심으로 써(25장)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1절). 견고한 성읍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은 돌이나 벽돌로 세운 성읍이 아닙니다. 이 성읍은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벽과 외벽을 의미하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2절)입니다. 이 나라는 은총으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써 죄 사함 받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엡 1:4~7). 또 “심지가 견고한 자”(3절)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요 16:33).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자”(3~4절)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사 26:4)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악행과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흠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12절). 이는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베푸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장소는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시내 사이입니다. 두 강 사이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며(창 15:18), 한 때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다스려졌던 이스라엘 최대의 영토입니다(왕상 8:65).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 때는 과실을 따는 것같이 일일이 모으실 것입니다. 땀흘려 이룬 한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는 과실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고 그것을 정성껏 모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메일 때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감사와 순종으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사 27: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청지기훈련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북왕국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 이미 패망의 길을 접어들어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남왕국 유다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에 취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북왕국 열 지파 중에서 한 지파지만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술독에 빠진 자와 같이 방탕에 젖어 있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영화로운 면류관' 같았지만, 실상은 '쇠잔해 가는 꽃'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21). 이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사 28: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회개하지도 않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술에 취해 감각을 상실해 버린 자와 같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9~10절). 이는 그들이 죄악 된 본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방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롬 1:28).

이런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합니다(11~12절).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이성만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가련한 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맹인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여 공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사 29:18)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제5차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교회를 향해 문안인사를 한 후에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좇고 있는 비신앙적인 태도를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6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유일성을 밝히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인들의 행위가 배교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7절).

이러한 다른 복음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자 합니다. 유혹하는 세력들을 분별해야만 하며 그러한 세력들에 용감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정도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8~9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2)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 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즉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 금지에 대하여 재론한 것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어 있는 갈라디아교회의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도 할례와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에 대해 비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도 준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16절).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교리를 보다 상세하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함으로써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3절)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강경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9~1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기 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갈 3:12)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상속자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우월성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1~7절). 비록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교와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한 후 합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듯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 언약 즉, 율법과 복음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과 사라로 빗대어 언급하고 있습니다(2~20절). 옛 언약인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지만,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된 자유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갈과 사라의 예로 들어 엄청난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육신적 생각을 따라 상속자를 낳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종을 낳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육신적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육체에 종노릇 하는 자 밖에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과 행위에 매여서 종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갈 4:3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유는 인간적인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1절). 율법의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자들을 율법과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자유를 깨닫고 누리던 자들이 다시 율법의 굴레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자유로 성령께 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16절).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을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천지창조의 모든 섭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인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1~2절). 왜냐 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난 형제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몰아세우는 대신 우리도 혹시 그러한 죄에 빠질까 스스로 경계하며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며 형제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3~5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8절).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14절).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산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세움 받은 모든 일꾼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10월 구역교재 초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단순합니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산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혼듭니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한걸음 한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매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점
1002	로마서 12:1~2	산 제물	산 제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자
1009	마태복음 19:13~15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라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자
1016	골로새서 1:9~12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하자
1023	골로새서 1:27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산 제물

| 초 점 |

산 제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자

| 찬 송 |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본 문 |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과오 중 하나는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에 답을 써 보십시오.

- 결혼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 교회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 전도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눅 5:5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진정 어떤 의미인지 살펴 보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자

산 제물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2:1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_____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간절히, 어떤 의미에서는 애걸하다시피 신자들에게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그분의 사랑과 은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롬 6:11~14 _____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우 자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한 제사, 곧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산 제물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2:2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_____ 변화를
받아 ...

마음은 행동과 욕구를 통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엡 4:20~24 _____

※ 로마서 6:4~8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말해 보십시오.

산 제물이 되려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보에 귀를 막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 62:5 _____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자

산 제물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2:2 / ... 하나님의 ☐하시고 ☐☐하시고 온전하신 ☐이 무엇인지
☐☐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뜻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의지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애타게 갈망합니다.

요일 2:15~17 / 이 ☐☐이나 세상에 있는 ☐☐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의 정욕과 ☐☐의 정욕과 이생의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 현재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나의 의지를 써 보십시오.

우리가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소유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얻습니다.

빌 2:8

산 제물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때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속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 20:28

※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순종과 산 제물의 삶을 연결하여 묵상한 뒤 깨닫는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산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나의 몸, 마음, 의지를 온전히 버리게 하소서
2.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삶과 가정이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2과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라

| 초점 |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자

| 찬송 |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 본문 | 마태복음 19:13~15

¹³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
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¹⁴예수께
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
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¹⁵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3:16 말씀에 기초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롬 5:8

예수님은 모든 어린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어린이들을 오게 하자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습니다.

마 19:13 /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
☐ ☐ ☐ 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이들의 심성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믿음을 갖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에베소서 2:16, 빌립보서 2:8, 골로새서 2:14~15 말씀에 기초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도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장애물이 있어도 어린이들을 오게 하자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일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 19:13 _____

※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이들을 혼낸 제자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린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지도자들도 어린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막 10:15~16 _____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회심한 성인 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필요에 대해 못 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린이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아와 복음을 듣는 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어린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마 19:14 / 어린 아이들을 □□하고 내게 □□ □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어린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이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눅 9:48 /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 □□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 누구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 19:15 _____

마 10:16 _____

주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장애물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린이들은 진실로 교회의 소망이며 주님의 기쁨입니다.

마 11:25 /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들에게는 숨기시고 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 18:3 /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_____
_____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돌봐줍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소중합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교회에 나온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3. 제3차 청지기훈련(10월23일)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소서

3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초 점 |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하자

| 찬 송 |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본 문 | 골로새서 1:9~12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교회를 친숙하게 느꼈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골 1:3~5 / 우리가 _____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 우리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골 1:9 /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_____ 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이나 골로새 교인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바울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 내가 매번 기도할 때마가 가장 우선하는 기도제목과 바울의 첫 번째 기도제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번성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 6:29 _____

요 6:40 _____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골로새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골 1:10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신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내하는 힘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어 본 뒤, 나의 기도 제목에 추가 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의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갈 5:16 / 너희는 _____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엡 5:2 /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 가운데서 행하라

엡 5:8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골 1:10~12 / ...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_____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길에서 걸을 때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 갑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 3:7~11 /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_____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_____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라 내가 와 그 의 권능과 그 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보화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복음 안에서 나의 기도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으며, 그 사랑의 마음은 기도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 골로새교회를 위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정리 해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세 가지 기도를 써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지 지나갈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함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제3차 청지기훈련(10월23일)에 우리 구역원이 전원 참석하게 하소서

4과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 초 점 |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자

| 찬 송 |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 본 문 | 골로새서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
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고전 15:5 ; 롬 11:25, 16:25~26).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의 비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신비가 지나간 세대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골로새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골 1:26~27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고전 15:19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_____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더욱 불쌍하게 만들 뿐입니다.

눅 18:23 _____

마 6:24 _____

어떤 사람들은 지식,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는 종교 예식이
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
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소망입
니다.

빌 3:18~19 /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_____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소망 없는 자는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엢 2:12 / 그 때에 너희는 _____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_____ 이더니

우리가 자신의 소망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죽음의 순간에 검증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전 4:13 /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_____

신자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영원한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신 가운데 죽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소망이 없습니다.

요 5:29 _____

※ 나는 소망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없는 자인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영광의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벧전 1:3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공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서 하게 하심
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게 하사 이 있게 하시며

살전 2:19 / 우리의 이나 이나 자랑의 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입니다.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
은 확실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
스도라는 근거 안에 보장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써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업
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놀라운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참 신자는
누리게 됩니다.

롬 8:18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영광의 소망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고전 2:8 /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_____ 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딤후 2:13~14 _____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취하십시오.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 헛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3일)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 ⁽⁹⁾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
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¹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¹¹⁾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¹²⁾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9~12)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3~5). 바울은 골로새교회를 친숙하게 느꼈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제목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나 골로새 교인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골 1:9).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간구하다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선

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변성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 건강, 존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 스포츠, 경제 이슈, 종교, 이웃, 가족, 사업, 교육, 사회적 인정 등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해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요 6:29).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제목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골 1:10). 다시 말해 바울은 골로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해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은 신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내하는 힘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공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이해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16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서 사는 동안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에 의존할 때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맡길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2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에베소서 5:8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님의 길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10~12).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길에서 걸을 때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7~11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얼마나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보화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지나갈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함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구원과 영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10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 비매품